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99

May 3, 2022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5
Tankers	9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3
Key Indicators	16
Issue & Trend	18
Contact Details	19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환율 기준선이 오른 것인가... 위기도 아닌데 달러당 1300 원 육박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2 원 내린 1265.0 원에 개장했지만, 장중 1270 원 선을 넘어서며 장중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 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기록 경신이다. 장중 기준으로 2020년 3월 23일 1282.5 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1,300 원을 위협하면서 환율 레벨의 평가 기준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환율 1,300 원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등 위기의 한복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평가 잣대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8일 1,270 원 넘으며 1,300 원대 위기감 증폭 = 2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증가 기준으로 1,272.5 원까지 올랐다. 29일 1,250 원대 중반까지 내려서기는 했지만 28일 증가는 2020년 3월 19일(1,285.7 원·증가 기준)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한때 금융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300 원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원/달러 환율 1,300 원은 그리 간단한 수치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1,300 원대에 들어선 적이 없다.

금융위기의 한복판이었던 2009년 3월 6일 장중 한때 원/달러 환율은 1,597 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를 찾았다. 평시에는 1,050 원과 1,200 원 사이에 머물렀다. 한국 경제가 견고하면 1,050 원 선을, 다소 어려운 국면에선 1,200 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현재 환율, 코로나 사태 초기 패닉 상황과 유사 = 원/달러 환율이 1,250 원대를 넘어 1,300 원대에 육박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코로나 19 사태 초기밖에 없다. 증가 기준으로 보면 2020년 3월 19일(1,285.7 원), 3월 23일(1,266.5 원) 이틀 뿐이다.

2020년 3월 금융시장은 코로나 19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습격을 받아 패닉 그 자체였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기록했던 3월 19일 코스피는 1,457.64로 코로나 19 위기 저점이었다. 나스닥

I . NEWS

지수도 7,150 으로 당시 저점 즈음이었다. 현시점에서 그 당시 수준만큼 원화 가치가 절하돼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이 맞물리며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양상이다.

원화, 주요 통화대비 덜 절하...국가신용등급도 유지 =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원/달러 환율이 1,300 원에 근접하는 현 국면을 한국이 절대적인 위기를 맞은 상황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최근 원/달러 환율 고점인 4 월 28 일 기준으로 보면 주요 6 개국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말 대비 8.1% 강세였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는 6.6% 절하됐다. 달러화 강세만큼 절하되지 않았다. 달러당 엔화 가치는 같은 기간 11.6% 절하됐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130 엔선을 넘어 2002 년 4 월 이후 가장 심각한 엔저를 기록했다. 유로화도 절하율이 7.6%에 달한다. 위안화 절하율은 4.3%다.

주요 통화와 비교해볼 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한편에 속한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의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의 봉쇄 등 대외변수에 따른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견해는 따로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 와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발표 시기가 둘 다 4 월 말이었다.

서학개미 여파도..."과거보다 환율 100 원 남짓 높게 봐야" = 이런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 레벨에 대한 평가 잣대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시장에선 차츰 흘러나온다. 1,250 원 안팎의 환율을 과연 한국 경제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다.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한국의 해외투자 분위기 역시 원/달러 환율의 수준을 바꾸는 원인으로 꼽힌다.

외환당국은 코로나 19 사태인 2020 년을 기점으로 서학개미들의 달러 매수 규모가 연간 기준으로 10 배 안팎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 년 이전에 개인의 달러 매수 수요가 한 해 20 억달러 안팎이었다면 최근엔 한 달에 20 억달러 안팎이라는 것이다. 올해 들어 나스닥 시장의 하락률이 두드러지면서 이를 저가매수하기 위한 달러 매수 수요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I . NEWS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국제적인 달러 강세나 서학개미 등 여파로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상응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100 원 남짓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2. '스크러버의 아이러니'..."개조만 하면 돈 버는데"

스크러버를 채택한 선주들은 지금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유종별 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요즘 고급 연료와 저급 연료의 가격차는 톤당 200 달러 이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 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스크러버를 단다는 것은 굳이 복잡하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야말로 '돈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하기 위해 많은 선주들이 조선소로 달려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핀란드 조선기자재업체 바르질라(WÄRTSILÄ)의 마린시스템 부문 타마라 드 그뤼터(TAMARA DE GRUYTER)사장은 이를 "하나는 운임이 좋아 개조공사를 하기 위해 선박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봉쇄조치가 개조 공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유종간 가격차를 보면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스크러버를 사서 달아야 한다. 그 정도로 스크러버의 경제성이 높다. 그러나 사상 최고의 운임 호황을 맞고 있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지금 스크러버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한가(?)한 일로 치부될 정도다.

여기다 개조공사를 하고 싶어도 항만 봉쇄로 인한 선혼 상태가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상당수 선박이 스크러버 개조공사를 하기 위해 드라이도킹을 했지만 공사를 해 줄 수리조선소들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스크러버를 주문해 놓고 있거나 스크러버를 달 계획을 세워놓은 선주들도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지정확적인 코로나 19 확산 추이, 그리고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 . NEWS

3. 현대글로벌비스, '스마트 물류시장' 공략 본격화

현대글로벌비스가 성장성이 높은 스마트 물류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첨단 물류 기술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1 일 밝혔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란 운송·관리 등 물류 전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틱스 등 다양한 IT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효율성을 끌어내는 사업이다. 산업의 성장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확장 등으로 물류센터의 대형화, 첨단화가 요구돼 스마트 물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고객사에 스마트 물류 컨설팅은 물론, 자동화 설비 도입, 시스템 개발 등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전 과정의 토탈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후 통합 운영을 원하는 고객사에게는 선진화된 운영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글로벌비스가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은 물류센터 설비는 물론 시스템 구축, 운영까지 전 영역을 포괄하는 특징이 있다. 고객사의 물류센터 진단 및 컨설팅 후 최적화 방안을 제안한 뒤, 스마트 설비 구축, 엔지니어링 등의 솔루션을 도입한다. 물류센터 설계, 설비 도입, 물류 솔루션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화 기반 운영 검증 등 물류센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직접적인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와 달리 지난 20 여년간 직접 물류센터를 운영한 노하우와 역량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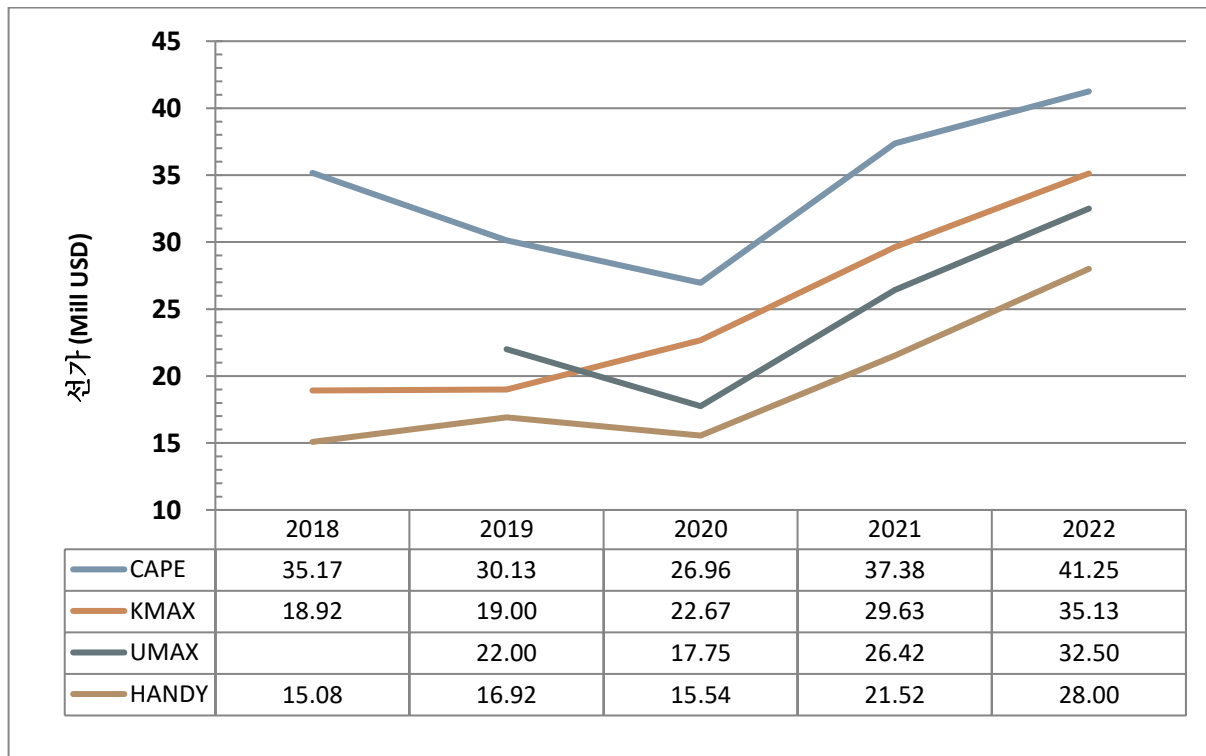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8	2019	2020	2021	2022
Capesize (180K)	35.17	30.13	26.96	37.38	41.25
	11.20%	-14.34%	-10.51%	38.64%	10.37%
Kamsarmax (82K) (*based on 76K until 2019)	18.92	19.00	22.67	29.63	35.13
	6.82%	0.42%	19.30%	30.70%	18.55%
Ultramax (60-61K) (from 2019)		22.00	17.75	26.42	32.50
			-19.32%	48.83%	23.03%
Supramax (58K) (until 2020)	17.92	17.17	15.92		
	9.69%	-4.20%	-7.28%		
Handysize (37K) (*based on 32K until 2018)	15.08	16.92	15.54	21.52	28.00
	9.37%	12.18%	-8.13%	38.47%	30.11%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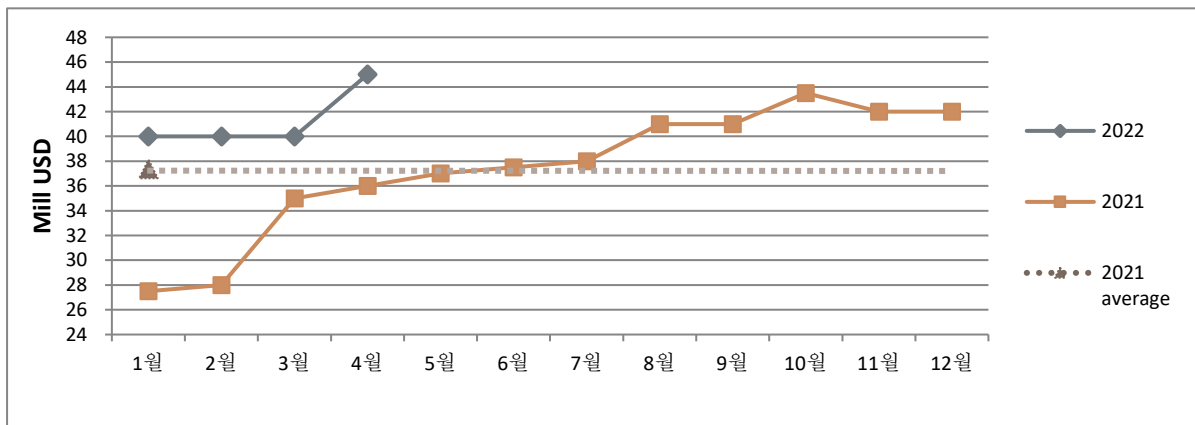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CAPE (180K)	선가	40.00	40.00	40.00	45.00			41.25
	전월대비	-4.8%	0.0%	0.0%	12.5%			--
	전년대비	45.5%	42.9%	14.3%	25.0%			10.4%
KMAX (82K)	선가	34.00	34.50	35.50	36.50			35.13
	전월대비	3.0%	1.5%	2.9%	2.8%			--
	전년대비	41.7%	38.0%	31.5%	35.2%			18.6%
UMAX (60-61K)	선가	30.50	32.50	33.00	34.00			32.50
	전월대비	1.7%	6.6%	1.5%	3.0%			--
	전년대비	52.5%	58.5%	46.7%	51.1%			23.0%
HANDY (37K)	선가	27.50	28.00	28.00	28.50			28.00
	전월대비	7.8%	1.8%	0.0%	1.8%			--
	전년대비	86.4%	72.3%	45.5%	42.5%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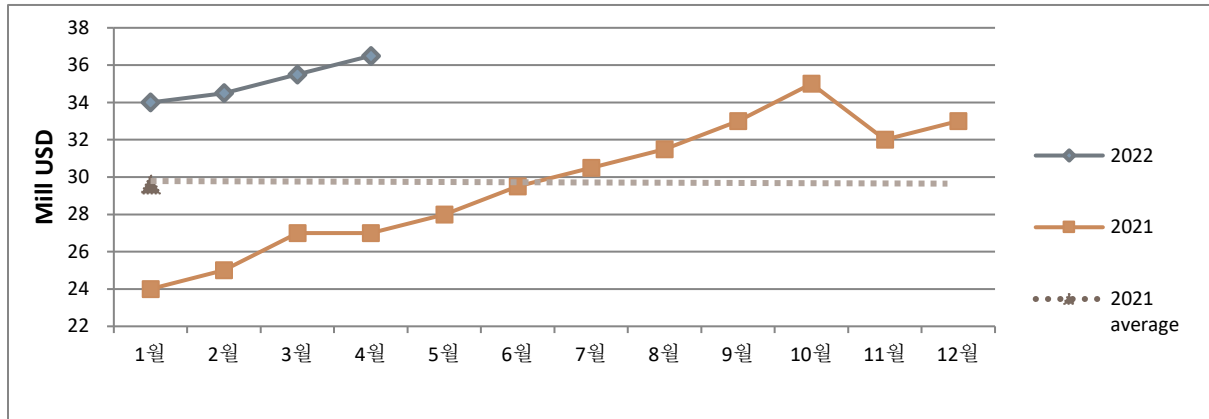
2021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CAPE (180K)	27.50	28.00	35.00	36.00	37.00	37.50	37.38
KMAX (82K)	24.00	25.00	27.00	27.00	28.00	29.50	29.63
SMAX (58K)	20.00	20.50	22.50	22.50	24.00	26.50	26.42
HANDY (37K)	14.75	16.25	19.25	20.00	20.00	20.50	21.52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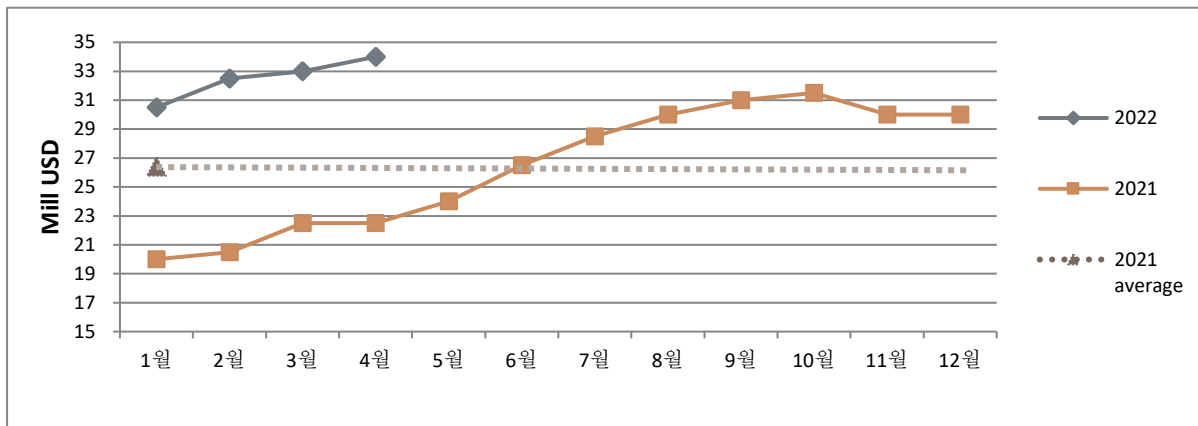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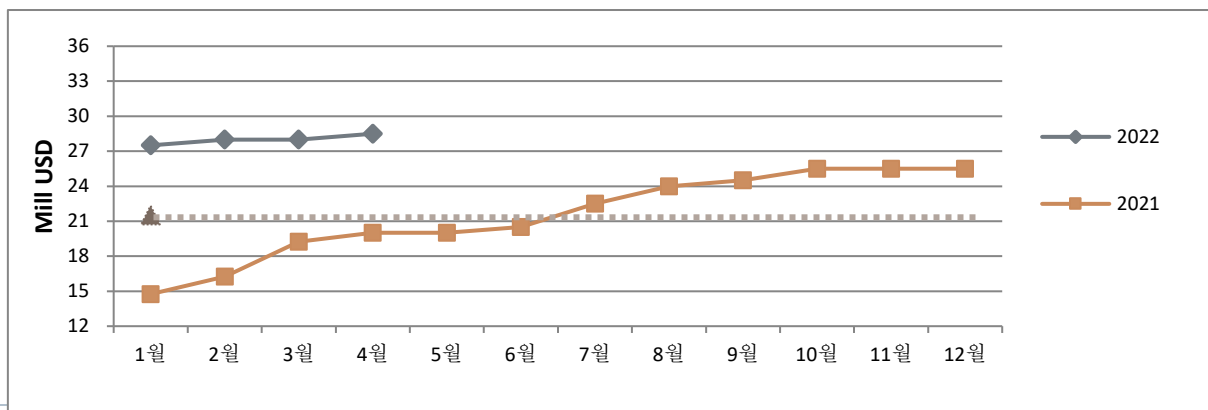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GC	AMORGOS	299,868	2004	JAPAN	Chinese		35.5	Chinese buyer
BC	AZUL LEGENDA	206,300	2008	JAPAN	B&W		26	European buyer
BC	C H S HARVEST	173,624	2006	CHINA	WART		17.5	Undisclosed buyer
BC	SPRING PRIDE	106,600	2007	JAPAN	B&W		17.5	Chinese buyer
BC	HONG GUANG	93,025	2012	CHINA	B&W		23	Turkish buyer
BC	BULK PANAGAEA	73,729	1999	JAPAN	B&W		8.8	Chinese buyer
BC	BULK PANGAEA	73,700	1999	JAPAN	SULZER		8.8	Undisclosed buyer
BC	TOMINI INTEGRITY	60,220	2016	JAPAN	B&W	C 4x30t	33	Chinese buyer
BC	DESERT HOPE	57,411	2011	KOREA	B&W	C 4x30t	45-2EB	Turkish buyer
BC	DESERT PEACE	57,411	2011	KOREA	B&W	C 4x30t		
BC	THUNDER	57,334	2009	KOREA	B&W	C 4x30t	18.36	Chinese buyer
BC	JIN BO	56,709	2012	CHINA	B&W	C 4x30t	16.16	Chinese buyer
BC	ASIAN CHAMPION	56,562	2012	CHINA	B&W	C 4x30t	19.25	Taiwan buyer
BC	ORION	56,155	2011	JAPAN	B&W	C 4x30t	22	Undisclosed buyer
BC	BULK ORION	56,155	2011	JAPAN	MAN	C 4x30.5t	22	Undisclosed buyer
BC	EREDINE	39,855	2014	CHINA	WART	C 4x36t	24.5	Undisclosed buyer
GC	XINYIHAI 55	33,217	2012	CHINA	Chinese	C 4x60t	18.5	Chinese buyer, auction sale
GC	ANACAPA LIGHT	32,100	2005	JAPAN	MITSU	C 4x30t	13.7	Chinese buyer, open hatch
BC	CS FELICITY	28,343	2009	JAPAN	B&W	C 4x30.5t	14.5	Undisclosed buyer, Log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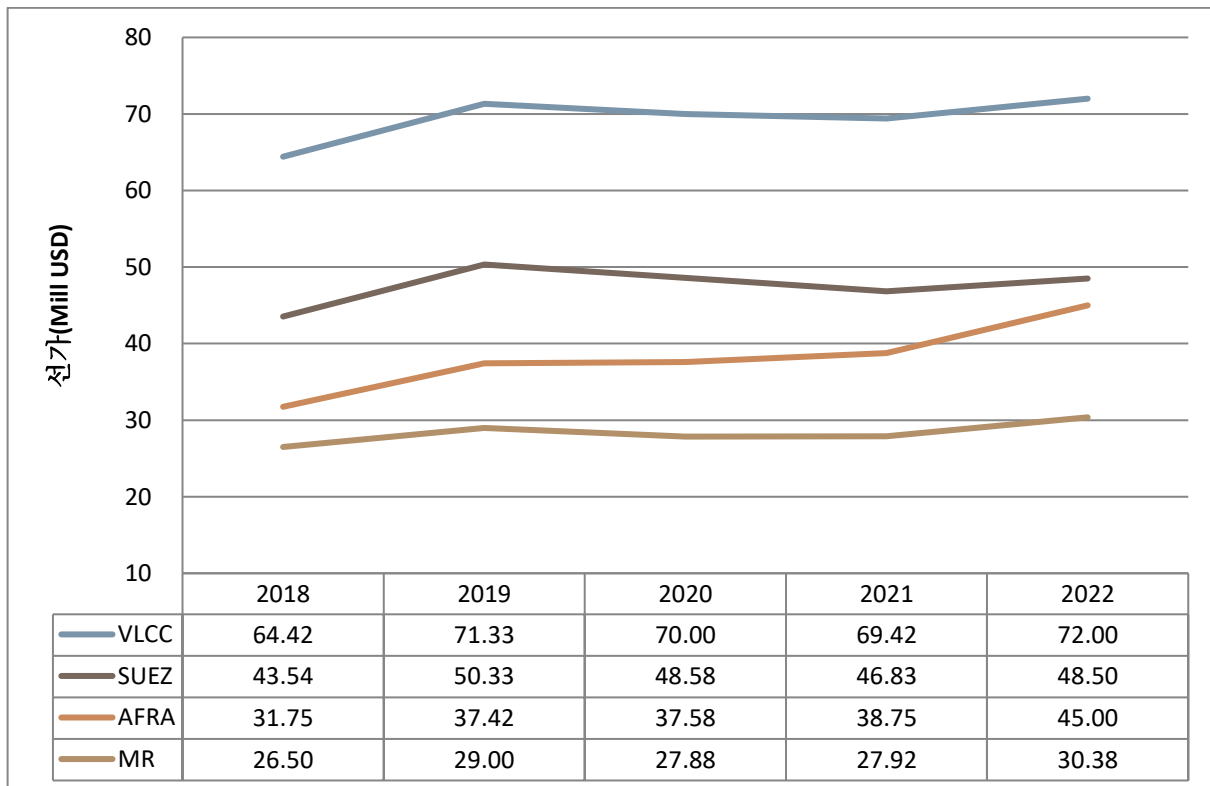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VLCC (310K)	64.42	71.33	70.00	69.42	72.00
	2.11%	10.73%	-1.87%	-0.83%	3.72%
Suezmax (160K)	43.54	50.33	48.58	46.83	48.50
	5.45%	15.60%	-3.48%	-3.60%	3.56%
Aframax (105K)	31.75	37.42	37.58	38.75	45.00
	4.81%	17.85%	0.45%	3.10%	16.13%
MR (51K) <small>*18 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6.50	29.00	27.88	27.92	30.38
	11.38%	9.43%	-3.88%	-0.15%	8.81%

□ TANKER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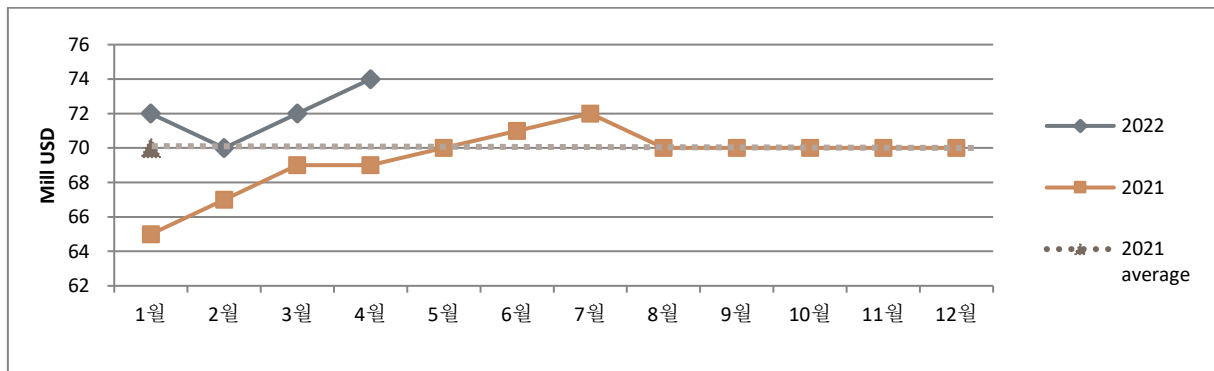




III. TANKER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VLCC 310K	선가	72.00	70.00	72.00	74.00			72.00
	전월대비	2.9%	-2.8%	2.9%	2.8%			-
	전년대비	10.8%	4.5%	4.3%	7.2%			2.9%
SUEZ 160K	선가	48.00	47.00	49.00	51.00			48.75
	전월대비	2.1%	-2.1%	4.3%	4.1%			-
	전년대비	9.1%	9.3%	8.9%	8.5%			0.3%
AFRA 105K	선가	45.00	45.00	45.00	47.00			45.50
	전월대비	9.8%	0.0%	0.0%	4.4%			-
	전년대비	36.4%	36.4%	21.6%	17.5%			21.1%
MR 51K	선가	30.00	30.00	29.00	32.50			30.38
	전월대비	3.4%	0.0%	-3.3%	12.1%			-
	전년대비	9.1%	9.1%	5.5%	18.2%			9.0%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연 평균
VLCC		65.00	67.00	69.00	69.00	70.00	71.00	70.00
SUEZ		44.00	43.00	45.00	47.00	47.50	48.50	48.58
AFRA		33.00	33.00	37.00	40.00	40.00	40.00	37.58
MR		27.50	27.50	27.50	27.50	27.50	27.50	2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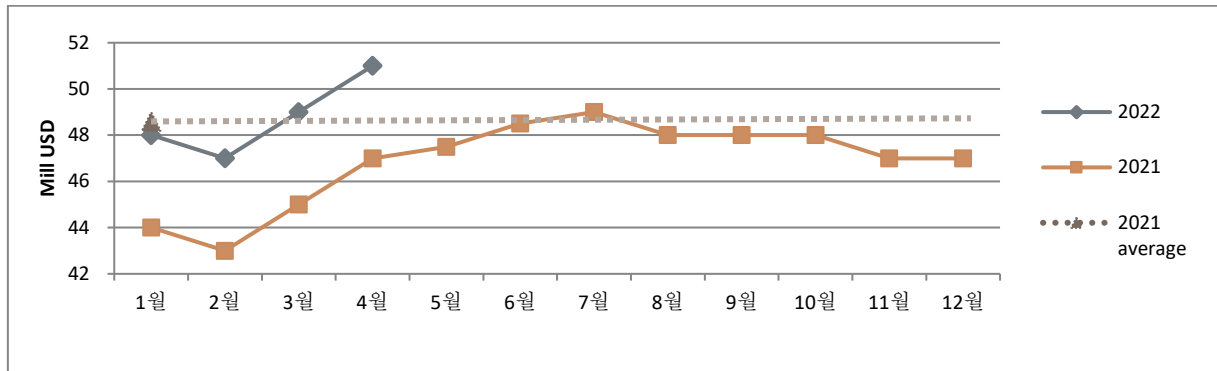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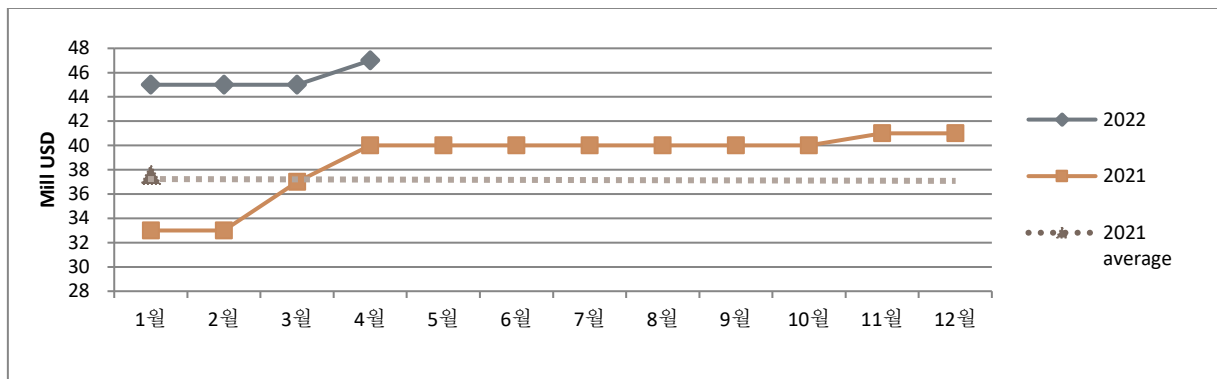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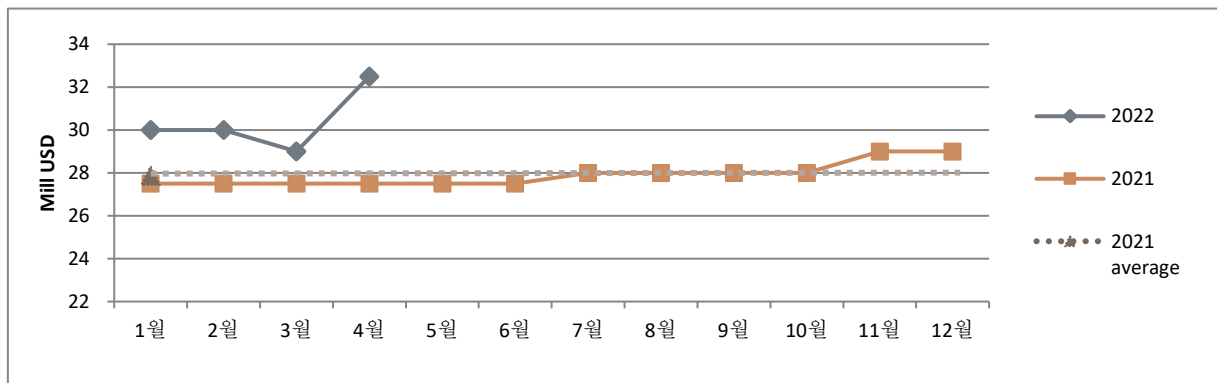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NISSHO MARU	300,544	2004	JAPAN	SULZ		31	Greek buyer
TANKER	STENA SUPREME	159,031	2012	KOREA	B&W		37.25	Greek buyer (Marmaras Navigation)
OIL/CHEM	MATUKU	52,000	2016	KOREA	B&W	2&3	31	European buyer
OIL/CHEM	ST. KATHARINEN	50,259	2013	KOREA	B&W	3	22.9	Indonesia buyer, epoxy coated/coiled
OIL/CHEM	ARDMORE SEAHAWK	49,949	2015	KOREA	B&W		24.5	Far eastern buyer
LPG	HELLAS SERENITY	54,125	2008	KOREA	B&W		47.5	Indonesia buyer
CHEMICAL	LS CHRISTINE	8,640	2007	TURKEY	WART	2	4.25	Undisclosed buyer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GLORY FORTUNE	13,760	2006	CHINA	B&W	1,098	TEU	15.5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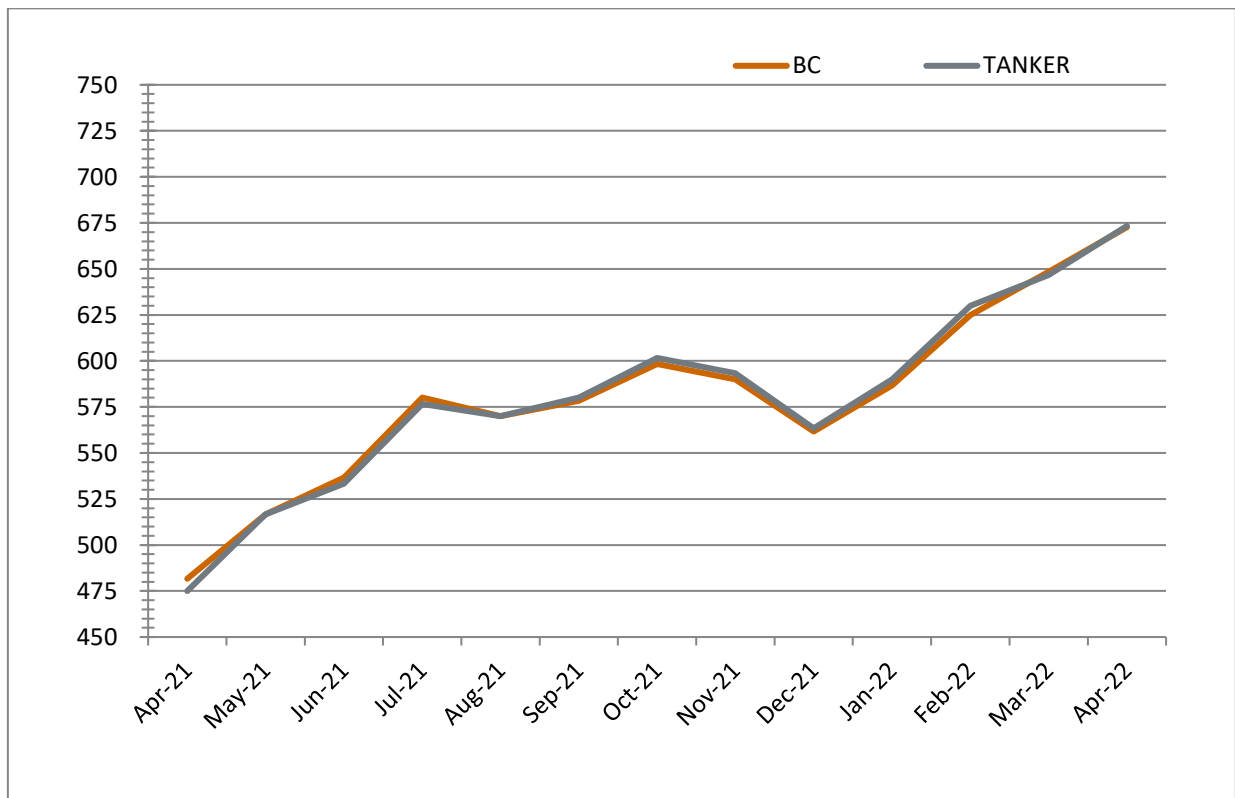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0 평균		2021 평균		2022 평균		2021.04	2022.04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344.44	-13.1%	526.81	52.9%	635.00	20.5%	475.00	673.33	4.1%	41.8%
BC	344.58	-13.6%	529.17	53.6%	633.17	19.7%	481.67	672.67	3.8%	39.7%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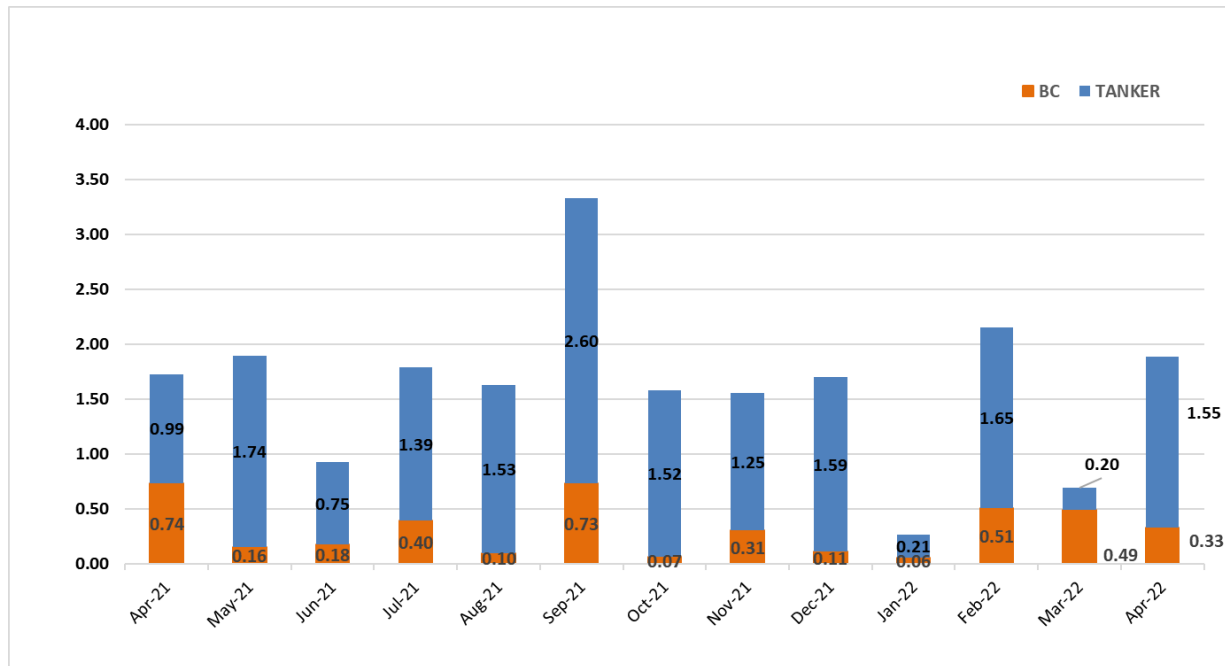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0		2021		2021.04		2022.04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No.	Million DWT	YoY	No.	YoY
TANKER	3.68	112	15.66	315	0.99	25	1.55	56.8%	26	4.0%
BC	15.61	164	6.34	123*	0.74	21	0.33	-54.7%	7	-66.7%

*including Bulk &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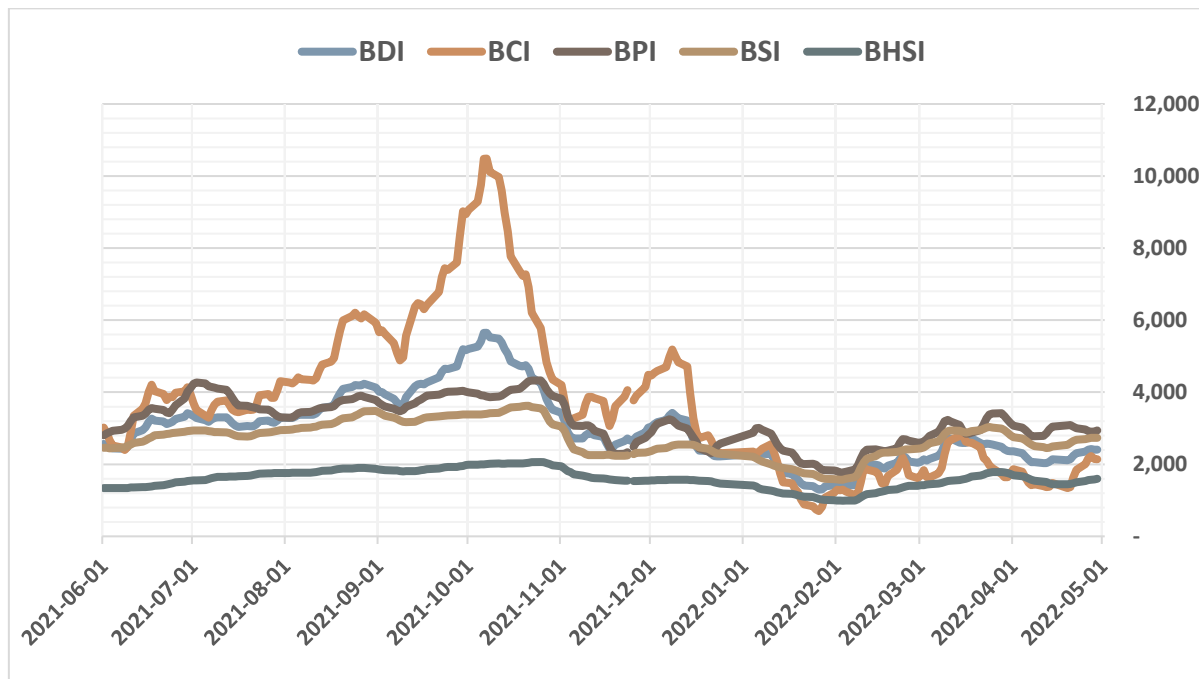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HEMI- CAL	ADEBOMI I	14,730	5,969	1993	SPAIN	B&W	460	AS IS LAGOS, NIGERIA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2-04-29	2022-04-22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2,404	2,307	▲97.00	5,650	1,296
BCI	2,136	1,845	▲291.00	10,485	702
BPI	2,938	3,004	▼66.00	4,328	1,765
BSI	2,734	2,678	▲56.00	3,624	1,570
BHSI	1,593	1,504	▲89.00	2,062	988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870.50	▲6.00	858.00	▲15.50	862.00	▼35.50
MGO	1198.00	▲22.00	1351.00	▲73.50	1411.50	▲96.00
LSMGO	1198.50	▲35.00	1317.00	▲33.00	-	-
IFO380	776.00	▲25.00	633.00	▼6.50	714.00	▼5.00

❖기준일 : 4 월 29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2-04-29	2022-04-22	CHANGE
미국 달러	1269.40	1236.40	▲33.00
일본 엔(100)	970.16	963.42	▲6.74
유로	1332.74	1339.76	▼7.02
중국 위안	192.03	191.43	▲0.60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호모 헨드레드 (homo-hundred)

호모 헨드레드란 의학기술 등의 발달로 100 세 장수가 보편화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유엔이 지난 2009 년 작성한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현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HOMO-SAPIENS)'라 칭하는 것에 빗댄 표현이다. 당시 보고서는 평균 수명이 80 세를 넘는 국가가 2000 년에는 6 개국에 불과했지만, 2020 년에는 31 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모 헨드레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 전체의 각종 시스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로 10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 월 25 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 년 10 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569 만 4617 명으로, 특히 100 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122 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00 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주거 환경, 건강 상태 등 생활 전반을 파악해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잡코리아



VII. CONTACT DETAILS

STL SHIPPING CO., LTD.		President Neal S.I. Kwon (대표이사 권순일) Tel. 070-7771-6410	
SnP snp@stlkorea.com		Jack Kim (이사 김종수) Director Tel. 070-7771-6411	
STL GLOBAL CO., LTD.		President Marino Hwang (대표이사 황재웅) Tel. 070-7771-6400	
Chartering biz@stlkorea.com	Sancho Kim (이사 김현진) Director Tel. 070-7771-6404	Mike Hong (부장 홍창목)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Fleet Operation biz@stlkorea.com	H.S. Lee (부장 이현성)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2		
Research & Operation snp@stlkorea.com	Anna Lee (과장 이혜란) Manager Tel. 070-7771-6403	Joovi Park (대리 박주비) Assistant Manager Tel.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Henry S.H.Oh (차장 오수현)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2	Jennifer Park (과장 박영단) Manager Tel. 070-7771-6407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 (차장 안지영)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5	Joanne Jin (과장 진정식) Manager Tel. 070-7771-6406	
Tel. +82-2-776-0840 (Rep.) Email. seoul@stlkorea.com website : www.stlkorea.com Address: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에스티엘 지투어_STL G TOUR		전남요트아카데미_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Tel. 1661-8388 Tel. 070-4800-0151 Fax. 02-6499-8388 www.stlgtour.com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Tel. 061-247-0331 Tel. 010-2777-4027 Fax. 061-247-0333 www.stlyacht.com academy@stlyacht.com
실장 김영하		실장 이진행	